

신라의 목간(木簡)과 문서행정 (文書行政)

글 | 이경섭(동국대학교 강사)

목간이란 무엇인가

목간(木簡)은 공사(公私)의 의지 혹은 정보 전달 등을 목적으로 나뭇 조각[木片]에 문자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문자가 기록된 것만을 목간이라고 하지만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목제품을 함께 목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 목간의 종류는 크게 관인(官人) 혹은 관사(官司) 사이의 명령 하달이나 보고 및 기록용으로 사용된 문서(文書) 목간과 물품에 부착되었던 고리표[附札] 목간, 그리고 기타 용도의 목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리표 목간은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물품고리표[附札]와 세물(稅物) 등으로 이동하는 짐에 부착되었던 짐고리표[荷札]로 나눌 수 있다.

서사(書寫)재료로써 나무를 이용하는 목간의 문화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 기원하였다. 중국에서는 목간을 비롯한 붓과 먹 등의 문방구류가 전국(戰國)시대(기원전 403~221)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진한(秦漢)시대에 이르러 국가행정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다가 이후 종이의 개량과 보급에 따라 점차 서사(書寫)재료의 주도적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목간문화는 중국 왕조와 낙랑(樂浪) · 대방(帶方) 등 군현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고대 한국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목간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가면서 국가 운영상의 내외적인 필요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한국의 고대 목간은 700여 점 정도가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0여 점에서 문자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고구려 목간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신라 목간이 500여 점을 상회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6~8세기에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특히 신라의 목간은 나무에서 종이로 이동하는 서사재료의 변화상 특징을 전(全)시기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목간문화, 나아가 문자문화를 살펴볼 때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신라 문서행정의 과정에서 목간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월성해자 2호 목간

신라의 궁성이었던 월성의 방어시설인 해자에서는 1985년부터 1986년에 걸친 발굴조사 과정에서 신라 중고기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2호 목간은 묵서의 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대표적인 문서목간으로 지목되어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월성해자 2호 목간의 판독과 해석 [크기 : 191×11×12mm]

- 1면 大烏知郎足下万拜白之
대오지랑 족하에게 만배(萬拜)하며 아립니다.
2면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斤
경(經)에 넣어 쓰려고 구매하는 흰 不雖紙(?) 한두근(혹은 12斤)
3면 牒垂賜教在之 後事者命盡
첩(牒)을 내리신 명령[教]이 있었습니다. 뒤의 일은 명한 대로 다하였습니다.
4면 使內
시킨 대로 처리했습니다.(일을 완료했다는 의미인 듯함)

먼저 목간의 연대는 신라 월성에서 연못형 해자가 존재하던 시기인 6세기에서 7세기일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경위(京位) 15관등인 대오(大烏)가 대오지(大烏知)로 표기된 점에서 제지(帝智), 지(智), 제(第), 지(之) 등의 어미가 탈락하기 전의 시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관등어미가 탈락하는 현상은 「창녕비」(561)에서부터 확인되므로 그 무렵의 목간일 가능성성이 크다. 위의 판독과 해석을 참고하면 목간은 관사 내부 혹은 관사와 관사 사이에서 상급자에게 행정 명령의 처리 결과를 보고했던 상신(上申)문서였다고 보인다. 목간의 내용에 나타난 행정과정은 ① 경(經)에 넣어 쓸 백불유지를 사라는 명령의 하달(牒으로 표현된 문서목간) → ② 명령 집행의 실무 담당자가 일의 처리를 진행함 → ③ 결과를 대오지랑에게 보고(문서목간으로 보고, 2호 목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 목간을 통하여 당시에 이미 행정 처리의 과정에서 문서주의에 입각한 문서행정의 기법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간 3면의 '첩(牒)을 내리신 명령[教]이 있었다'는 것에서 명령이 첨(牒)으로 내려졌으며, 이 첨 또한 목간의 문서로 하달되었을 것이다. 2호 목간은 명령[教]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이처럼 행정명령과 보고가 문자로 표현되고 있지만, 목간의 문장에서 구두(口頭)형식적인 측면이 강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보다 세밀한 규정에 의해 엄정한 서식을 갖춘 문서식(文書式)의 체계까지를 완성시켰던 시기는 아니었다. 나아가 '경(經)에 넣어 쓰려고 구매하는 종이'(사경용 종이로 추정)에서 서사재료로써 목간과 종이가 함께 사용되던 시대상을 전하고 있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문자문화를 생각할 때에 이 목간 1면 '대오지랑 족하만배백지(大烏知郎足下万拜白之)'와 3면 '첩수사교재지(牒垂賜教



01 월성해자 출토 2호 목간의 적외선사진

在之)'라는 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면의 '모족하백(某足下白)'은 '~님에게 아립니다'라고 해석되는데, 이 같은 문서목간의 형식은 고대 일본의 7세기 후반 후지와라노미야(藤原宮)목간 등에서 다수 확인된다. 일본 목간에서는 주로 '~앞에 아립니다'의 '모전신(백)[某前申(白)]' 형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중국 육조(六朝)시대의 서장 내지는 문서에서 기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월성해자 2호 목간의 발굴로 한국의 목간 및 문자문화가 고대 일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장종결사로 사용되었던 '-(자)之'와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사)賜-'의 용례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 사이타마현(埼玉縣) 코시키다(小敷田)유적 출토 목간
크기 : (400)×28×5mm]
 - 直許在□□代等言而布四枚乞是寵命座而
 - 乎善問賜欲白之



02 코시키다(小敷田) 목간(뒷면)

코시키다(小敷田) 목간은 8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의 연대로 비정되는데, 상부가 소실되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지만 대개 토(布) 4매를 청구하는 문서라고 생각된다. 뒷면의 남은 부분은 ‘…(를) 잘 물으시기를 원컨대 사립니다(白之)’ 정도로 해석되는데, ‘지(之)’가 문장 종결사로 사용되었으며 ‘사(賜)’는 상급자의 행위에 대한 존칭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앞에서 월성해자 2호 목간 3면의 첨수사(牒垂賜) 부분의 사(賜)를 ‘첩을 내리신’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존경법의 선어말어미인 ‘-賜-’(-사-)의 용례이다. 코시키다유적 출토 1호 목간의 사(賜)도 이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나아가 고대 일본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자료에 해당하는 「법릉사금당약사여래상광배명(法隆寺金堂藥師如來像光背銘)」(607)에서 ‘勞賜時(힘쓰실 때에)’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상신의 의미가 있는 모전백(某前白) 목간에서 자주 확인되고 있다.

목간이나 종이에 문자를 쓰는 행위는 외부의 문자인 한자를 이용해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한국이나 일본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외부의 문자를 해당 사회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언어 사정에 걸맞은 노력이 동반되었는데, 고대 한국에서는 한자를 이용해 우리말을 기록하던 표기법인 차자(借字) 표기법이 발생하여 전개되었다. 이는 처음

에 고유명사의 어휘를 표기하는 수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변체한 문(變體漢文) 혹은 초기 이두(吏讀)의 단계를 거쳐 이두와 구결(口訣), 향찰(鄉札)의 단계로 전개되어 갔다. 고대 일본의 경우도 한자를 일본어에 적용시킨 고대 한국의 차자표기법과 유사한 일본어 표기법이 문자생활의 초기에 사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체험했던 고대 한국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의 이면에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했던 인간집단들의 문자문화가 존재했던 것이며, 그 구체적인 자료가 바로 새롭게 출토되고 있는 목간과 같은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월성해자 2호 목간은 이러한 사정을 암시하는 중요한 자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산산성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세계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현재까지 신라의 목간 281점(문자가 확인되는 목간은 224점)이 발굴되었다. 이들 목간의 연대는 신라가 안라국(安羅國)을 점령하는 561년 무렵으로 생각되며, 대부분이 짐꼬리표 목간으로 확인되었다. 목간의 기본적인 기재내용은 「지명+인명+물품명+수량」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물품명이나 수량 혹은 물품명과 수량 모두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기재내용을 통하여 짐꼬리표 목간을 제작한 이유가 ‘어디의 누가 (무엇을 얼마나)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간의 크기와 형태, 서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목간에 나타난 상위지명 단계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신라의 수취행정이 아래에 여러 자연촌을 거느린 행정성·촌을 단위로 해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목간에 나타나는 지명들이 당시 신라의 감문주(甘文州 : 上州, 지금의 경상북도 일대)로 비정되기 때문에 처음 목

간이 공개될 무렵부터 이 지역의 수취물이 낙동강의 수운(水運)을 통하여 새로운 복속지인 구(舊)안라국 지역으로 운반되었던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감문주 지역에서 성산산성으로 군자를 조달하는 문제는 국가의 의지가 계획적으로 작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신라는 안라를 복속한 거의 동시인 562년 무렵 가야 전역을 지배하게 된다. 새로운 복속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고, 식량 등의 군자 조달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신라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군자의 조달과 운송이 가능한 감문주에 피(碑)·맥(麥) 등의 군량과 철 등 군수물자의 송납(送納)을 전체적으로 지시했을 것이다.

짐꼬리표 목간은 일차적으로 세물(稅物)을 수취하면서 어디의 누가, 무엇을, 얼마나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주(州)로 성산산성에 보낼 군자의 조달을 명령했다면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였을 것인데, 수취의 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자·품목·물량의 검수(檢收)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짐꼬리표 목간은 첫 번째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짐꼬리표 목간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부착될 무렵 수납장부(收納帳簿)와 같은 문서로 재정리되었을 것이다. 주로 하달된 군자 조달 명령은 다시 주에서 예하 행정성·촌의 사정에 맞게 할당되었고 각 성·촌에서 주로 공진물을 납입할 때 그것을 확인하는 문서행정의 과정에서 목간이 만들어졌다. 이어서 목간이 각각의 품목에 부착되어 이동한 다음 폐기된 사실은 성산산성에서 그 기능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성산산성으로의 군자조달은 지정된 물품이 성산산성으로 납입이 이루어진 후에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자의 전체 품목과 총액의 확인을 진행하였을 것이며, 최종적인 검납의 과정에서 짐꼬리표 목간은 또 한번 기능하게 된다. 이렇듯 성산산성 짐꼬리표 목간의 이면에는 다양한 장면의 행정과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행정은 문서 목간이나 종이문서를 매개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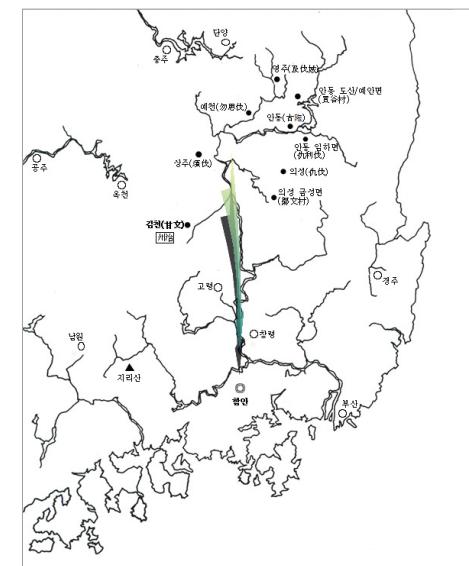
이성산성(二聖山城) 목간과 지방의 문서행정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이후 이 지역 지배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었다고 생각되는 하남 이성산성에서는 목간과 벼루, 목서가 남겨진 토기뚜껑 등 다양한 문자유물이 발굴되어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지방의 문서행정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아래의 목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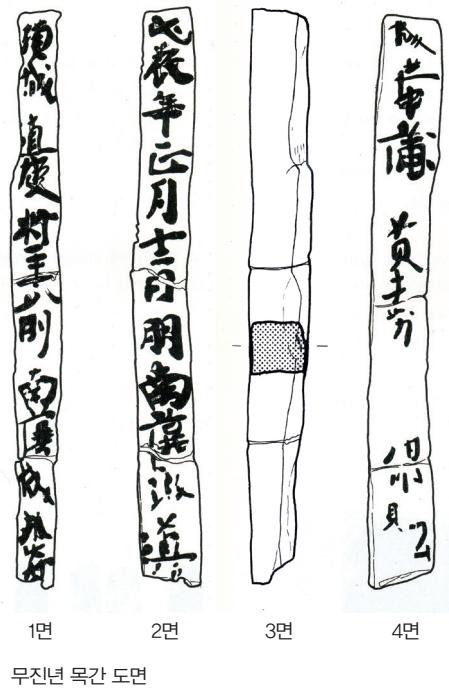
- (1면)戊辰年正月十二日朋南漢城道使… (결실)
- (2면)須城道使村主前南漢城火□… (결실)
- (3면)城上□去□□□… (결실)



03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



04 성산산성 목간의 지명 비정과 군자조달 경로



05 무진년 목간



06 무진년 목간 적외선 촬영 사진

이 목간은 4면으로 구성된 다면목간으로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3면에서 40여 자가 확인되며, 특히 무진년이라는 간지가 특징적이다. 목간과 함께 출토된 A지구 1차 저수지의 유물들이 통일기 이전 6~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한강 유역을 둘러싼 고구려와 신라의 대립이 격화되는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무진년을 608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1면은 무진년 정월 십이일에 남한성의 도사와 누군가 등이 함께 문서를 보낸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간의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날짜 다음의 봉(朋)이 문서목간 서식상에서 복수의 발신자를 의미하는 일본 후지와라쿄우(藤原京) 목간의 사례에서 추정가능하였다. 2면의 첫머리는 이 문서 목간의 수신자인 수성 도사와 촌주를 기재하고 있으며, 나머지와 3면은 목간을 통하여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묵서되었다. 내용은 하단부가 결실되었고, 3면의 글자를 제대로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다. 2면 말미를 성화(城火)라고 읽을 수 있다면 이는 남한성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면의 결실된 부분과 3면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판독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성화'에 대한 무엇인가의 조처를 수성 도사와 촌주에게 요청(혹은 지시)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문서 목간의 수신자가 수성 지역의 행정관인 도사와 실질적인 재지지배충이라고 할 수 있는 촌주였다는 사실에서 수성의 행정력 및 촌민의 노동력과 관련된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렇듯 당시 남한성과 수성 사이에 행정상의 문서전달 체계가 수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7세기 초 신라의 지방사회에서 거점성을 매개로 문서행정에 의한 지배력이 관철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간은 앞에서 살펴본 월성해자 2호 목간과 서식(書式)상 공통 점을 지니고 있다. 월성해자 목간의 '대오지랑족하만백지(大烏知郎足下万拜白之)'와 이성산성 목간의 '수성도사촌주전(須城道使村主前)'은 족하(足下) · 백지(白之), 전(前) 등의 표현으로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월성해자 목간에는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지 않고 구두로 보고하는 것처럼 문장이 쓰여졌지만, 이성산성 목간에는 날짜와 함께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확인되며 문장 또한 보다 간결한 공문서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관료기구와 공문서제도가 점차 성숙해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처음에는 구두 보고 · 전달의 형식이 그대로 문서화 · 문자화되었기 때문에 날짜는 물론 보고대상자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서 제작 혹은 날짜의 유무, 수신 · 발신인의 명기, 구두 형식과 문서형식의 문제 등에서 월성해자 목간과 이성산성 목간의 차이는 확연해 진다. 문서 목간에 날짜가 기입되고 수신인과 발신인이 명기되는

현상은 문서의 수수(授受)와 내용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이는 율령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제되는 문서형식으로 문서 작성의 기준이 수립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월성해자 2호 목간과 이성산성 목간의 문서행정상의 의미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신라는 진흥왕대에 본격적인 삼국 간의 항쟁에 뛰어들었고 진평왕 전반기에 이르러 주요 관부를 설치하는 등 국가제도의 발전과정을 경험해 나가게 된다. 이 시기의 유물인 이성산성 목간은 이에 동반하여 문서행정의 영역이 구두(口頭)의 세계에서 문서(文書)의 세계로 변모해가는 현실을 내면화한 자료인 것이다.

목간문화의 추이

신라가 삼국 간의 항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통일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 내부의 문서 행정 영역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라는 당(唐)과의 항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문무왕대 후반에 이미 중앙행정관부의 정비와 지방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문서 행정의 영역에서 주목되는 것은 문무왕 15년(675) 각 관청과 주군(州郡)에 구리로 제작한 인장을 나누어 준 사실이다.

양주 대모산성에서는 1981년 발굴조사 도중 성내 건물지유구에서 전서체(篆書體)로 “□□□현지인(□□□縣之印)”이라는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청동도장이 발견되었는데, 함께 출토된 유물의 상황으로 보아 이 청동인은 삼국 말이나 통일기 신라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모산성 출토 청동인은 문무왕 15년의 반인(頒印)정책과 직접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되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졌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간독(簡牘)이 주된 서사재료였던 시대에는 문서행정의 영역에서 인장이 간독의 봉인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로 음각의 도장이 사용되었다. 이는 간독문서를 봉인할 때 사용하는 진흙을 누르면 문자가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후 종이가 등장하고 보급되면서 문서도 종이에 기록되고 도장



07 대모산성 출토 청동인

또한 종이에 찍는 양각의 주인(朱印)이 사용되었다. 신라에서의 인장 반포와 대모산성 청동인의 존재는 지방 주군현과 중앙정부의 문서행정에서 목간으로부터 종이라는 서사재료의 변화를 위한 일대 쇄신이었다고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비록 날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문서(695)야말로 이같은 서사재료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통일기를 경과하면서 목간의 문화 혹은 목간의 문서행정이 모두 종이의 그것으로 대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성산성 목간 중에서는 통일 이후의 것들이 존재하며, 8세기 중반 안압지 목간의 존재도 이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관부 내부나 관인 사이의 간단한 정보 전달은 여전히 목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물품의 수취와 보관의 영역에서는 서사재료상 특성 때문에 꼬리표[附札]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다만 중요한 행정문서들은 통일 이후 종이의 문서로 대체되어 갔음을 분명해 보인다. ▶▶

필자소개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신라 중고기 목간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 박물관 연구원, 충남대 백제연구소 연구원, 경북대 박사후 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목간과 금석문 등 고대 문자 자료의 특성과 그 역사상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